

경제

광주 '미소금융' 31일 오픈

양동시장에... 포스코도 광양에 개설 추진

내년부터 저신용·저소득층 대출 본격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한후 중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포스코도 광양에 자체 출연한 미소금융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31일 미소금융중앙재단 광주 서구지점...

우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 중 1개사 이상에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된다.

서구지점은 지점장을 포함해 4명의 상근 인력이 미소금융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대출 대상자를 선정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

미소금융 대출종류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금리, 상환. Lists various loan types like 영세사업자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대출,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창업·임차자금.

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를 초과하는 사람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정보와 국제 및 지방세 체납정보, 파산 등 공공정보가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의 구입비를 지원하며, 시설개선자금은 생계형 차량이나 비품집기를 구입할 때 대출이 가능하다. 두 상품의 대출한도는 각각 1천만원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대상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 차량, 비품, 집기 구입비 등을 대출해주는 무등록사업자대출의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다.



LG이노텍 서울 스캐어빌딩에 새둥지

LG이노텍이 21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서울역 앞 서울스캐어빌딩으로 본사를 옮겼다.

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LG이노텍은 지난 7월 LG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후 규모가 커져자 본사 이전을 추진해 왔다.

'순이익 1兆 클럽'

삼성·포스코·현대차 등 올해 13개 회사로 늘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기업들의 '꿈의 리그'인 순이익 1조원 클럽에 들어가는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상장사 중 10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낸 삼성전자를 필두로 13개사의 순이익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이제는 작년 8개사에서 5개사가 추가된 것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순이익은 작년 5조5천259억원보다 78.01% 늘어난 9조8천3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Table with 5 columns: 항목, 수치, 변화율. Lists economic indicators like 코스피지수 (1,644.23), 코스닥지수 (518.09), 금리 (4.19%), and 원·달러 환율 (1,183.70).

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로

금호산업 주식 12.7% 인수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1일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2천227만주를 952억원에 취득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보유하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33.5% 가운데 12.7%(2천269만여주)를 주당 4천275원에 금호석유화학에 매각했다.

그룹 측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우건설 매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호산업은 1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제철 맞은 생대구

21일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서 제철을 맞은 4kg 이상 크기의 국내산 생대구를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예금은행의 수신이 188억원 증가했으나 보통예금(1천281억원→2천562억원) 및 기업자유예금(2천408억원→1천770억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달(1조1천978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 금융기관 수신

10월 중 2,353억 ↑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0월 중 여·수신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2천353억원이 증가했지만 전달(2조2천599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연탄·내복값 급등 서민가계 '寒波'

상승률 30년만에 최고치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내복과 난로, 연탄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대로 뛰어오르는 등 월동 물가가 들쭉여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6% 증가해 1995년 10월(7.8%)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최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인기를 끄는 내복 가격의 급등세도 무시할 수 없다.

해 1998년 10월(14.6%) 이후 최대로 올랐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9.3% 올라 1999년 9월(22.0%)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탄 가격은 전달보다 19.1% 올라 1980년 5월(35.5%) 이래 최대로 급등했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수완지구 롯데마트앞 펠리스타워빌딩 임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building near Lotte Mart.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